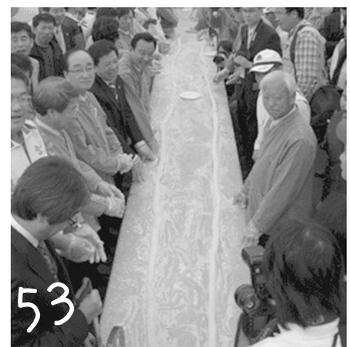


CONTENTS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금강- 세 가지 문제점 _ 이걸재
공주시 의회를 찾아서⑤ _ 8
한국 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부
특집(Ⅰ) _ 12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⑨ / 백원철
특집(Ⅱ) _ 16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⑧ / 장길수
특집(Ⅲ) _ 20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 / 나태주
우리 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3
-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⑤ / 이일주
향토사료 _ 29
-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제의 공주 장군 니식진 / 이일주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31
- 공주시 웅진동
공주의 인물 _ 38
- 충정공 목제 이 귀
내고장 소식 _ 40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1
문화원 소식 _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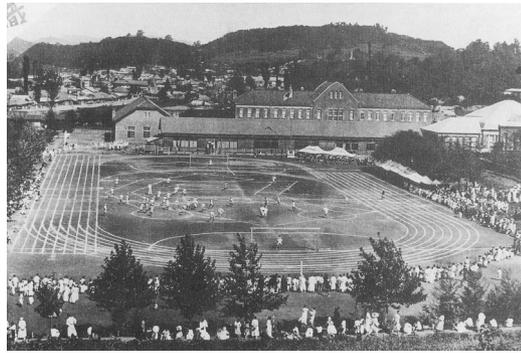


公州의 어제와 오늘

공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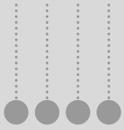
1927년 공주 공립 고등보통학교
충남 유일의 인문계 조선인 학교였다.



1928년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운동회



지금의 공주고등학교



이 걸 재 _

- _ 현) 의당면 부면장
- _ 향토소리꾼
- _ 예인촌 대표

금강-세 가지 문제점

금강에 라버댐이나 돌보를 막고자 하면서 엉뚱하게도 서천, 부여, 청양의 금강 하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공주 일원에 라버댐이나 돌보를 막으면 금강의 환경이 파괴되어 금강 하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큰 피해나 볼 것처럼 떠들어 댁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말이 <금강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입장에서 이보다 심각한,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나 몰라라 말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참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수원으로의 용담댐과 대청댐

공주 사람들은 아직도 금강의 물을 퍼 올려 정화하여 수돗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금강수계(錦江水界)의 많은 도시들이 용담댐과 대청댐에서 상수원을 끌어다 먹고 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심각함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금강의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금강을 맑게 가꾸고 금강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쓰는 고장들을 불행하게도 상수원으로 쓰고 버리는 물이 다시 금강수계로 들어가지 않고 만경강이나 영산강 수계로 버려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금강 물을 끌어다 쓰고 버리는 물이 다시 금강으로 들어간다면 하류를 흐르는 물의 양(水量)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일원의 대부분의 고장들이 사용하는 물들은 금강수계로 버려지지 않고 영산강이나 만경강 수계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금강의



로 보면 강물이 증발해 버리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하류로 내려 갈수록 강물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 지역의 금강 물이 대청호 상류인 금산 지역의 금강 물보다 적게 흐르고, 금산 지역 금강의 물이 용담댐 상류인 진안 지역의 금강 물보다 적다는 것이 강의 생태 환경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상류에서 낭비되어 사라지는 물들은 비교적 오염이 덜된 맑은 물이고 하류를 흐르는 양이 적은 물들은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정화하여 버린 물이라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댐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바뀐 환경은 강바닥의 변화입니다. 댐으로 인하여 모래와 자갈의 유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평상시 적은 물이 흐르는 금강은 지반이 모래 부분으로만 흘러 바닥을 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마 때에는 황토분말(黃土粉末)이 유입된 금강은 물이 맑아지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풀이 자라는 부분에 황토가 쌓여 풀이 자라는 면적이 넓어지고 섬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여 강의 계곡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 현상은 불행하게도 백제 유적의 핵심인 산성공원 앞을 흐를 때 가장 극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배다리 턱이 들어 흰히 노출되어 버렸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배다리 턱에서도 3-4m 깊이 파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풀이 자라는 부분은 예전보다 1m 가까이 높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이 강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물입니다. 인간이 강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최소한 금강에서 퍼다 써야 하고 쓴 물은 금강으로 버려야 하류의 수량에 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강의 환경은 그나마 최선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흐르는 강물의 양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라버댐이나 돌보에 비교 할 수 없이 큰 환경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서천과 부여가 용담댐에서 상수원을 끌어다 쓸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강의 환경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강 하구둑 아직도 필요한가?

금강 하구둑은 강물과 바닷물을 각각 섞이지 않게 차단하는 인위적인 시설물입니다. 하구둑을 막은 이유는 철저히 인간을 위해서 막은 시설물이라는 점이지요.

하구둑을 막을 당시의 금강 수계는 제방의 축조가 미흡하여 홍수가 나면 수해 피해가 막심했었고 특히 금강 하구의 바닷물이 만조일 때 홍수가 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둑을 막는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업용수로 필요한 담수의 확보를 포함해서 둑을 막을 당시에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막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하구둑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하구둑이 막히기 전에는 금강에도 어부(漁夫)들이 많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와 강이 생태적인 조화를 이루었기에 어족(魚族)의 종류와 수량 면에서 모두 풍부했었지만 하구둑이 막히고 나서는 환경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지요. 강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급속히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구둑이 막히기 전에는 농어가 검상동 앞에서도 잡혔고 5월 송어는 연기 경계 지역에서도 잡혔으며 참게와 장어는 금강 전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던 어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구둑이 막히고 나서는 이런 환경이 철저히 파괴되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설속의 물고기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금강 제방은 지천(支川)의 제방까지 거의 완벽하게 축조되었습니다. 이제는 홍수가 저도 하구둑의 개폐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구둑의 운영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생태가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주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강 하구둑의 영향으로 금강 수위(水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금강은 하구둑의 영향을 받아 강물의 수위가 조정되는 곳은 기가 막히게도 공주와 부여 경계 즉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앞까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여 앞 전역의 금강은 앞서 말한 용담댐과 대청댐의 영향으로 강물이 냇물처럼 줄어드는 현상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뜻하며 부여 이남의 금강은 언제나 많은 수량으로 흘러 강이 강답다는 것이지요.

백번을 양보하여 하구둑을 공주의 라버댐이나 돌보와 연계 짓지 않는다 하여도, 강물이 줄어 강이 죽어가는 공주에서 강물의 양을 조절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강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금강 하구둑은 없애든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여 금강의 생태를 예전으로 돌리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점은 백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천5백만의 많은 인구가 의지해 살아가는 한강에도 막지 않은 하구둑을 금강에 방치해야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금강에 자라는 섬들

금강 내에는 무수히 많은 섬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공주 금강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섬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래였으며 빛나는 자갈들이었고 무엇보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강에 생겨난 섬들은 계속 자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섬들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혹자는 그것도 자연의 한 부분이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섬에 이름을 지어주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목소리도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자연의 환경 그대로 두어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둑(江堤防)이 절대적인 강쪽으로 확정지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강둑이 확정지어진 상태에서 강에 생겨나고 자라나는 섬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홍수 때 강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나 농경지로 달려들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안입니다.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1987년 7월 홍수 시 금강 물은 분명히 공주시 옥룡동의 금강 빌라 2층까지 잠겨 수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서 우리



는 당시 금강에는 구 금강교 앞에 섬이 아예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하구 여러 들판에 제방들도 지금처럼 확실하게 쌓지 않아서 금강물이 들로 넘쳐 강의 수위를 줄이는데 기여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강의 제방이 확정되어 강물이 넘칠 곳이 없는 현실에서 강안의 섬들이 커져 나간다면 1987년 수해보다 적은 양의 홍수에도 재앙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의 환경과 인간은 동전의 앞뒷면

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최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환경 보호의 절대 가치라지만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것조차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성립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으로의 강! 그 핵심은 댐도 하구둑도 제방도 아닌 강물입니다. 강에 물이 없는 것이 이미 강이 아니기에 강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듯이 강물이 말라가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행하지 않음이 강을 아끼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명제입니다.

강을 가장 강답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 모두의 지혜와 증지를 모아야 할 기점일 테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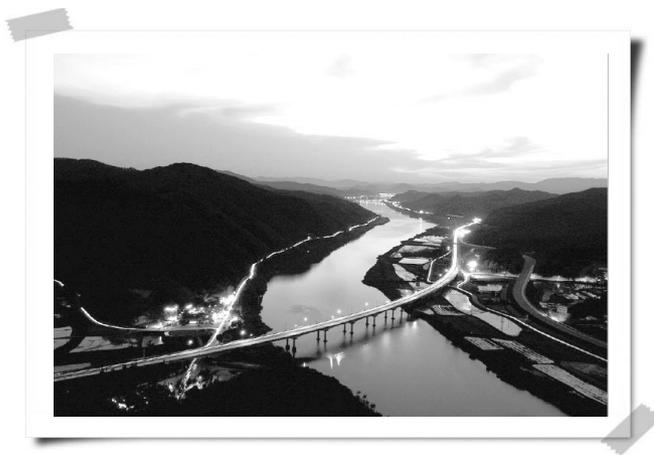


사진 ©서명범

「공주문화」는 공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조길행 공주시의회 의원과 박종숙 의원을 만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애인 위해 헌신하겠다”

공주시의회 터줏대감 조길행 의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의회 제3대 공주시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과 제4대 충청남도도원을 거쳐 제5대 공주시의회에 입성한 의회 터줏대감이다. 조길행 의원은 의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름나 있다. 그만큼 의정활동에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9월5일 공주시 임시의회에서도 기업유치 특진조례 일부개정안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 1월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지금에 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특정기업 유치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시 집행부 관계자들을 진땀 빼게 만들기도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무리 타당한 조례개정일지라도 특정업체의 입주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도 얼마 전 개정된 조례를 다시 개정 요구한 공주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특정업체의 특혜성 여지에 대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되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공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조길행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인 조길행 의원은 의당면 사회복지관 내 장애인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장본인이다. 이 기관은 장애인 여성자모회의 모태가 되기도 했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의원이 되기 전 그는 장애인들과 삼천포로 1박2일 나들이를 동행하면서 장애인에게 갖는 사회의 편견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의원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리라 약속했고 의원 당선 후 그가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남부장애인복지관이였다. 그는 “공주지역 농촌 예산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최하위”라며 “노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농촌이 산다”며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길행 의원은 제3대 공주시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 우성면농업경영인 후원회장(현),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장, 중부주유소, 중부제3주유소 대표(현), 충청남도의회 의원출마(제4대), 새마을지도자 우성면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공주시협의회장, 상서학구체육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 홍보 자문위원, 우성면정 자문회의 위원장, 우성새마을금고 감사, 공주시 체육회 이사, 우성면농업경영인 후원회장(현),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우성중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 우성농협 평가자문회의 위원, 공주시재향군인회 이사(현), 충청남도 새마을회 이사,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상서초등학교 운영위원(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주쌀로 공주떡 인절미 홍보하자”
공주의 우먼파워 제호, 박종숙 의원
여성농업경영인 출신 의원 면모 보여줘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 총선에서 화제의 인물이 탄생했다. 여성비례대표 박종숙 의원과 임성란 의원이다. 박종숙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초선 의원의 열정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종숙 의원은 특히 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장 등 지역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의 소외계층, 특히 여성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나섰다고 의미 있게 말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제53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700m 인절미 만들기’ 행사에서는 공주쌀로 공주떡인 인절미 홍보에 앞서 한국여성농업인 출신 의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어르신 목욕사업’, ‘외국여성 친정엄마 돼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어르신 목욕사업은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예년보다 많이 깎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명했다.

지난 4월 18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임성란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심사는 어머니의 자상함과 섬세함으로 심사하기 위해 여성 의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 이색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종숙 특위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예산 심사이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9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특유의 섬세함으로 공주의 조경에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정안 산성리 가로공원 조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왕벚꽃나무’ 보다는 ‘무궁화꽃나무’가 우리 정서와 도시 조경에 어울린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노인회, 청년회 행사와 여성대회 등 다른 시에서는 여성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주시가 여성들을 위한 행사지원에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소외계층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종숙 의원은 사곡면 화월1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공주시 연합회 회장(현),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현),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현), 공주시 종합대책협의회 위원(현) 등을 맡아 의욕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공주의 우먼파워 제1호로 손꼽히고 있다.

취재_신용희 명예기자

금성(錦城)을 노래하다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1677~1724) 공이 남긴 시에 금성가(錦城歌) 10수가 있다. 지난 호에 소개한 바와 같이, 공은 家兄인 이순좌(李舜佐)가 이곳 진영장(鎭營將)으로 부임하자, 공주를 찾아 월여(月餘)를 머물며 공주의 산천경계를 읊었던바, 금성가 10수는 곧 이 때에 지은 시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公州西蜀宛相似
形勝江山天下奇
已看峩峩如對案
還將錦水作湯池

(頭陀草, 冊十一)

공주와 중국의 서촉은 서로 비슷하노니
강산의 뛰어난 경치는 천하의 으뜸이라네
아미산을 바라보니 마치 마주보는 듯 한데
금강물 두르게 하여 탕지를 이뤘도다.

본래 중국 서촉(西蜀 : 蜀漢)의 西都를 금성(錦城) 또는 금관성(錦官城)이라고 부르는 바, 이는 비단(錦)을 관장하는 관아(官衙)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곳에는 또 아미산(峩眉山)이 있는 바, 두 개의 산이 눈썹(峩眉)처럼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아미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여기에서 담헌 공은 공주의 지형적 형세가 위의 금성과 비슷하다고 하여 공주를 금성이라 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공주의 여미산(余眉山)이 공산(公山)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서촉의 아미산과 비슷하며, 비록 비단은 없지만 금강(錦江) 물이 비단결처럼 흐르고 있기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② 山如公字城如月
城下長江萬里流
青夜試登拱北望
風光不減敬花樓

산은 공자 모습이고 성은 月자 모양인데
성 아래 장강은 멀리 멀리 흐르누나
맑은 달밤에 공북루에 올라 바라보니
좋은 경관 꽃잎 날리는 누각에서 즐길 수 있네



공산의 산 형태가 公字의 모습인 것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거나, 지은이 답헌 공이 성의 형태가 月字의 모습이라고 파악한 것은 흥미롭다 하겠다.

- | | |
|--|---|
| <p>③ 仁祖南巡甲子年
山頭雙樹荷恩偏
居人指點論兵處
只有豐碑立屹然</p> | <p>인조대왕이 난 피해 남으로 온 갑자년에
산 위의 쌍수는 은총을 흠뻑 받았다네
주민들 병사 지휘하던 곳 가리키는데
큰 비석만 다만 우뚝하게 세워져 있구나</p> |
|--|---|

위의 갑자년은 이괄이 난을 일으킨 1624년이다. 이괄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서 2등 공신에 책봉되고 또 평안 병사로 좌천되자 불만을 품었는데, 이 해 2월에 군사를 끌고 남하하여 서울을 빼앗고 새로운 왕을 추대까지 하였다. 그러나 관군에 패하였으며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이 때 인조대왕이 난을 피해 공주로 잠시 몽진왔었던 바, 당시 머물던 공산성 위에 두 그루 나무가 있고 쌍수정이 세워져 있다.

- | | |
|--|---|
| <p>④ 荒林古廟是熊津
戰伐悠悠閱幾春
英勇只知一庾信
事功猶說兩劉仁</p> | <p>우거진 숲 속 오래된 사당이 있는 곰나루
전쟁은 아득한 옛날 몇 해가 흘렀더니
뛰어난 영웅은 다만 한 사람 유신뿐인데
공덕을 칭송함은 오히려 두 사람 유장군이라네</p> |
|--|---|

나·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시 당나라 유인원(劉仁願)이 이곳 곰나루에 주둔한 바 있었고, 뒤에 유인궤(劉仁軌)가 웅진도독(熊津都督)이 되어 역시 이곳에 주둔했었는데, 이 때 굶주린 백제의 백성들을 구휼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민생을 안정시켰으므로 백성들이 그 공덕을 일컬었다고 한다.

- | | |
|--|--|
| <p>⑤ 峩嶧山下巡營開
縮轂三南此一隈
五十四州皆管領
觀風宣化最難哉</p> | <p>아미산 아래 순영이 자리잡았으니
삼남을 통괄하는 곳이 바로 이 굽이라네
오십사주 고을을 모두 관할하여 지휘하나니
풍속을 관찰하여 교화를 펴기 가장 어려웠으리</p> |
|--|--|



공주가 국토방위의 지리적 위치에서 삼남(호서, 호남, 영남)의 방어에 요충지가 됨을 말한 것이다.

⑥ 鈿帶羅衫大髻峨
 妓生粧束果如何
 腰支裊娜峨仙舞
 音調清圓海月歌

금박띠 비단 적삼에 큰 트레머리
 기생들의 단장모습 과연 어떠하더냐
 허리 팔 다리 간드러지는 아선의 춤이요
 맑고 그윽한 소리 가락은 해월이의 노래라네

화사하게 치장한 두 기생, 아선(峨仙)이의 춤과 해월(海月)이의 노래를 읊은 것이다.

⑦ 縣監守廳只三人
 一美芳年十五春
 載月癡戀尤絕倒
 羞人却向暗中嘖

현감의 수청을 들은 세 사람이니
 일미는 꽃다운 열다섯 살이요
 재월이의 어리광은 배꼽 잡게 웃기는데
 부끄러워하면서 갑자기 토라진다네.

현감 수청을 드는 기생 3인 중 일미와 재월이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⑧ 烟月今年纔十七
 纖纖雙手可憐白
 邇來偏得縣監寵
 每夜東軒抱腰宿

연월이는 이제 나이 겨우 열일곱인데
 가냘픈 두 손은 희고 곱다네
 요즈음은 현감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매일 밤 동헌에서 허리를 끼고 잔다네.

나머지 기생 한 사람 연월이가 현감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수청 드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⑨ 四松亭在綠江西
 霜柿酣紅萬樹迷
 若使老夫來卜築
 不妨改號浣花溪

사송정은 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리 맞아 익은 홍시 열린 나무들 아득히 보이네
 만약 늙은 몸으로 이곳에 살게 된다면
 이름 고쳐 완화계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사송정은 현재 공주시 월송동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이다. 원래 광해조에서 좌찬성을 지내고, 임란 때의 공으로 여흥군에 봉해진 이상의(李尙毅, 1560~1624)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대손인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택리지를 쓰며 한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95년 공주시에서 위치를 약간 옮겨 복원한 것이다. 완화계는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계곡인데,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의 고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지은이는 은연중 자신을 두보에 비겨 문인으로서의 자긍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⑩ 一月熊州樂事偏
賦得新詩五十篇
修倣放翁劍南倒
却題卷面錦江編

한 달 동안 웅주에서 즐겁게 보냈는데
새롭게 지은 시는 50편이 되었구나
모름지기 방옹을 본떠서 검남에 이르렀으니
시집 표지에는 ‘금강편’이라 써 붙임이 옳겠네.

방옹은 남송(南宋)의 시인 육유(陸游)를 가리키는데, 촉(蜀)지방의 풍토를 사랑하여 그 곳을 찾아 시를 짓고 그 시집의 제목을 검남시고(劍南詩稿)라 하였다 한다. 또한 검(劍)은 검산(劍山)으로서 장안(長安)에서 촉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다.

지은이 담헌 공이 자신이 공주를 찾아 놀며 시를 지은 것을, 방옹이 촉을 찾아 놀며 시를 지은 것에 비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8)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II. 공주의 옛 터와 땅이름(2) - 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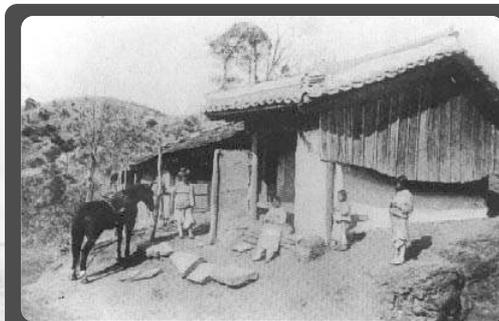
1. 역과 땅이름

근대 이전의 교통 운송 체제는 역원 제도로 운영되었다. 역제의 성립은 신라 소지왕 9년(487)에 시작되어 대체로 고려 중엽에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역의 수가 5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역이 대체로 30여 리 간격으로 산재해 있었다.

역이란 역마를 비치하고 약간의 이졸(吏卒)을 두어 공문서 전달과 관물 수송을 하였으며, 출장 공무원에게 말을 제공하던 기관이다.

옛날에 역이 있었던 마을이 지금도 역말, 역촌, 말죽거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많이 있다. 일신, 유구 등 역의 이름이 그대로 동네 이름으로 굳어진 곳도 있다.

공주 관내에는 6개의 역이 있었다. 그리고 역과 관련된 땅이름의 흔적이 도처에 많이 남아있다.



시골의 작은 역



역에서의 말 사육

1) 일신역과 일신동

1980년대의 일신동 부근

금강교에서 신관 파출소를 지나 관골 앞과 신관초등학교 앞길로 이어지는 도로가 일제시대에 건설된 이른바 신작로이다. 그리고 신관초등학교 앞 신작로를 따라 구릉 밑으로 신작로와 나란히 좁은 길이 주공아파트 2단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 길이 역로를 따라 이용되었던 옛길이다. 지금은 '일신역길'이라 부르고 있다. 이 일대를 역말 또는 일신이라 부르고 있다. 이 부근에 일신역이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역뒤길 : 신관초등학교 4거리에서 신관초등학교 서편~주공아파트 1단지와 5단지 사이길로 이어져 관골 뒤쪽으로 정안천까지 이르는 길이 '역뒤길'이다. 역의 뒤쪽 길이라는 뜻이다.

•역뒤들 : 관골 뒤쪽에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를 '역뒤들'이라 한다. 지금은 쓰레기 매립으로 새로운 공터로 조성되어 있다.

2) 유구역과 역말

유구역은 땅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구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의 유구리 지역은 1914년 통폐합되기 전에는 농기리(農基里)·역리(驛里)·창촌(倉村)·남방리(南坊里)·석담리(石潭里) 등의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중 하나가 역리(驛里)인데 이는 역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당시 유구역에는 기마(騎馬-타는 말) 5필, 복마(卜馬-짐 실는 말) 5필, 노(奴-사내 종) 38명, 비(婢-계집 종) 18명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



1980년대의 일신동 부근

모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유구리에는 가구수 62호, 남자 108명, 여자 90명으로 도합 198명이 거주하는 조그만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역리(驛里)가 유구리에 통합되면서 역리라는 땅이름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역리 또는 역말이라 불리던 마을이 통틀어 유구리라 불리며 일부 노인들만 역말에 대한 연유를 알뿐 젊은이들은 역말이란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정안면 광정리에도 광정역이 있었던 관계로 역말, 역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3) 고단평과 단지리

사곡면 고당리에는 고단평, 안단평, 외단평 등의 땅이름이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 이곳에 있었던 단평역과 관련이 깊다. 조선 중기에 단평역은 우성면 단지리로 옮겼다고 한다. 그 후 단평역이 있던 사곡면 지역은 '고단평(古丹坪)'이라 부르고, 역이 새로 옮겨간 우성면 지역은 '단평역(丹坪驛)'으로 불렸다. 고단평의 흔적은 고당리라는 땅 이름 속에 남아있다. 고당리란 땅 이름이 고단평과 원당 두 고을에서 비롯되었음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고단평이란 옛날 단평이란 뜻이다. 예전에는 관청이 옮겨가면 옛터는 옛고(古)자를 땅이름에 덧붙여 사용한 흔

적을 엿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군산이다. 고려시대에 선유도에 있던 군산진(群山鎭 : 오늘날의 해군 기지)이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군산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옛터는 '고군산(古群山)', 새터는 '군산(群山)'으로 불리고 있다.

단지리 지역은 우성면 지역으로 1914년 통폐합 때 단평리와 지곡리, 분토리, 월굴리, 동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단평과 지곡의 이름을 따서 단지리라 하였다.

단평의 원래 이름은 아침 단(旦)의 단평(旦平)이었는데 세종 대에 붉은 단(丹)의 단평(丹坪)으로 바뀌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古旦平避我太祖諱改之'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의미는 '예전에 旦平이었는데 우리 태조의 휘(諱 = 돌아간 높은 어른의 생전의 이름)를 피하기 위해 고쳤다'라는 내용이다.

우성면 도천리에는 단평역에 있는 말을 길렀다는 역곡(驛谷)이란 동네가 있다.

4) 이도역(利途驛)과 이인역(利仁驛)

관청 이름은 땅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이다. 공주시청, 대전역 등이 그 예이다. 관례에 따른다면 이인의 이전 이름은 이도(利途)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 공주목조에

6개의 역이 나온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인역(利仁驛)은 옛날에 이도역(利途驛)라고 하였으나 지금 임금의 이름을 피하여 이인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세종 임금의 휘(諱)가 도(?)인데 이도(利途)의 도(途)와 발음이 같아 이도를 이인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인역은 찰방역으로 역할은 컸으나 역말이나 역촌 등의 땅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인초등학교 뒤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동편 평평한 부분이 이인찰방역터로 전해오고 있다.



이인찰방역터-이인초등학교 뒤편

5) 공주 지역의 역

공주 관내에는 일신역·광정역·경천역·단평역·이인역·유구역 등 6개의 역이 있었다.

당시에는 찰방이라는 종6품의 관직을 두어 몇 개의 역을 관할하는 역도(驛道)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구역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같은 방면을 관할했다. 찰방 본역인 이인도에 9개의 속역이 있는데 그 중 두곡(서천)·청화(비인)·남전(남포)·숙흥(홍산) 등은 행정 구역상 홍주목에 속했다. 한편 공주목 관할 내에 위치하는 일신·광정·경천·단평·유구 등의 역은 청주목 소속인 성환도에 속해 있었다.

공주 지방의 역을 여지도서와 공주 군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면 통폐합에 따른 통합 면의 명칭 및 소재지 이동 상황(1914년)

역도	역명	위치	소속면	기마	복마	사내종	계집종	현재소속읍면
성환도	일신역	주북10리	동부면	7	8	39	22	신관동 일신동
	광정역	주북40리	정안면	7	8	31	19	정안면 광정리
	경천역	주남40리	익구곡면	7	8	37	18	계룡면 경천리
	단평역	주서15리	우정면	5	5	29	17	우정면 단지리
	유구역	주서50리	신상면	5	5	38	18	유구를 유구리
이인도	이인역	주남25리	반탄면	4	7	47	15	이인면 이인리

4·19 학생혁명기념비를 보러 갔다가 황인식 선생 교육 공로비



나 태 주

시인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공주사범학교 졸업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이번이 두 번째 걸음이다. 첫 번째는 4·19 학생혁명기념비를 살펴 보기 위해서 왔었고 오늘은 황인식 선생 교육 공로비를 보기 위해서 찾은 길이다. 공주 시가지 중심부분에 있는 중앙공원. 한 때는 생산공원이라 부르던 곳.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벚꽃 몇 그루 심어놓고 그렇게 이름지어 불렀던 모양이다. 제법이나 가파른 길을 몇 번 꺾어서 오른 막바지 길에 조그만 동산이 나오고 거기 역시 조그만 광장이 있고 4·19 학생혁명기념비는 우뚝 서 있다. 처음 왔던 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서려다가 광장의 남쪽 풀덤불 속에 서 있는 조그만 깃비 하나를 보았다. 비는 사각모양 철책의 집에 둘러싸여 있었다. 비석 둘레로는 잡풀들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라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말끔히 치워져 있다. 아마도 추석명절을 보내면서 누군가 다듬은 흔적으로 보인다. ‘황인식 교육 공로비’. 비의 전면에 한글로 새겨진 글자다. 교육 공로비라? 지금껏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명칭이다. 선정비라든지 송덕비, 공적비, 기념비, 기적비, 시비, 문학비, 노래비, 가비(歌碑)같은 용어는 자주 들어왔어도 교육의 공로를 기린다는 뜻의 교육 공로비란 처음으로 대하는 이름이다. 관심이 갔다.

비의 왼쪽 측면에는 ‘공주 뜻있는 젊은이들 세움’이라 새겨져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비를 세운 날짜가 새겨져 있다. ‘단기 4291년 9월 30일’이다. 이를 서기로 바꾸어 보면 1958년이 된다. (그러나 영명고등학교 안에 세워진 황인식 선생 흉상 아래 새겨진 문구에는 건립연도가 1957년으로 되어있다. 아마도 1958년이 옳을 것이다.) 이 시기는 자유당 정권 말기로 여러 가지로 살기 힘겹던 시절이다. 그 시절에 일

찍이 공주에 뜻있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 이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상당한 마음 쓰임이 거기 있었음직하다. 비의 뒷면에는 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하늘을 그리워 꾸미지 않는 마음과 그 손길
 어둠을 빛으로 가꾸어 봉오리마다 눈 뜨임 입고
 보람된 내일로 익어 가는 가슴에
 기리 짧어만 있을 당신의 아름다움이여

이원구 지음

글의 내용이 딱 며씩하다. 글쓴이가 이원구라 하면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를 지냈으며 그 학교에서 ‘시회(詩會)’라는 이름으로 문학모임을 주도·결성하여 활동한 시인으로 공주 출신 문인 가운데 일세대 문인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분이 쓴 비문에는 객관적 정보가 전혀 없고 다만 감정적 찬사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뭐, 다 아는 사실을 두고 굳이 밝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투다.

그건 그러했다. 정작 황인식(黃仁植) 선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만큼 황 선생의 위상은 공주지방에서는 우뚝했던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공주를 일러 교육도시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언뜻 공주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되는 데에는 공주지역에 있는 몇 개의 대학교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 앞선 것이 충청지방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립학교인 영명학교의 존재를 뛰어넘기 어렵다. 황인식 선생에 대한 과객의 부질없는 의문점들은 중앙공원과 연계해 있는 영명고등학교 교정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이내 풀리게 되어있다.

영명학교 정원에는 개교 백주년을 기념하는 웅장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그 전면엔 영명학교에 초석을 놓고 초대교장으로 일했던 미국인 선교사 우리암(禹利岩, 미국이름, 윌리암) 선생의 흉상과 이력이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뒤편으로는 영명학교 출신 인사로 걸출한 인물인 조병옥 박사,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황인식 선생의 흉상과 공적사항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뿐더러 그 뒤편으로 가면 오래 전 세

워진 기념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생의 공적비는 쉽게 만날 수 있겠다.

영명학교 제1회 졸업생(1908년). 영명학교 교사(1912년). 미국 유학을 거쳐 영명학교 교사로 복귀(1926년). 일제 말기 이런 저런 사유로(광주학생 사건 때 명명학교 학생 동맹휴학 유도, 창가 사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일제 경찰에 의한 피검과 투옥.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청 고문 위촉과 충청남도 초대 도지사 역임(1945년). 군산해양대학교 초대 학장을 거쳐 영명학교 2대 교장 취임(1949년). 화려한 경력이다. 이만 하면 교육도시 공주의 인사 가운데 첫째자리라 할 만하고 국가적 애국 지사의 반열에 들고도 남을 인물이겠다. 그러기에 중앙공원에 세워진 선생의 비석에 아무러한 수식도 없었구나, 그 머쓱함이 비로소 이해가 가게 된다.

짐작컨대 선생은 오로지 일생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신 분으로 보인다. 그분의 일생이야말로 공주 교육의 산 증인으로서의 일생이요, 사표師表로서의 생애일 것이다. 한 사람이 살다간 흔적이 실로 단아하고 정결하고 향기롭지 아니한가! 선생은 참으로 공주인다운 인간상이다. 일찍이 이런 분을 공주가 배출했다 함은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자랑이요 한 긍지이겠다. 모든 역사와 공적이 서울 중심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이러한 분이 일찍이 공주에 계셨음으로 공주가 공주다웠을 것이고 교육도시 공주가 또한 교육도시다웠을 것이다. 개명(開明) 공주, 오로지 이 한 분으로 하여 공주의 교육, 그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쓸쓸하지 아니하고 환하겠다.

오늘날, 영명고등학교 구관 옆으로 등나무 어우러진 쉼터 바로 앞에는 다른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조형물 하나가 있다. '교사명(教師銘)'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돌로 된 표석이다. 교사명이라 그러면 교사로서 마음 속에 깊이 새겨둘 지침 같은 것이겠는데 그 돌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사랑/ 권위/ 사명감'. 이런 데서도 선생의 해묵은 체취가 묻어나지 않을까. 가을날, 맑은 하늘 아래 홀로 찾아와 홀로 바라보는 나그네의 눈길은 유난스레 아득하여 멀리 멀리 옛날의 그 시절로 돌아간 서 있는 듯한 감상에 흠뻑 젖기도 했을 것이다.

|향토사료|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 (5)

교원양성기관



이 일 주

- 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졸업
-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공주가 교육도시로 널리 인정된 또 한 사실은 일찍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 발전되어 왔다는 점인데, 그 효시는 ‘공주도립사범학교’이다.

공주에 사범학교가 처음 설립된 것은 1922년으로 한성사범학교가 관립으로 개편, 발족된 시기보다는 16년이 늦은 것이지만, 당시 충남지방(대전 포함)에서는 유일한 교사양성기관이었다. 공주도립사범학교도 위에서 살펴 본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공주군민들의 상급학교 유치운동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대신 공주공립농업학교를 예산에 양도하게 되었다.

한편 공주도립사범학교는 예산으로 이전한 공립공주농업학교의 교사를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며, 1929년에 폐교하였다.

공주공립농업학교는 공주에 소재하였던 충청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결정에 관련하여 유치된 학교였다.

193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가 충청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공주 시민들은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조선총독부가 도청의 대전이전을 단행하자 도청의 대전이전 조건으로 공주에서는 금강배다리(현재 금강철교 동쪽 말목이 박혀있는 곳)를 철교

* 이 글은 2002년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주시지 하권(下卷), pp.167~255(제5편 제3장 교육)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로 가설해 줄 것과 농업학교 및 여자사범학교를 신설하여 공주를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당시 공주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보상책의 하나로 1933년 3월 13일 자로 공주공립농업학교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1922년에 설립된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개교 사무를 추진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충남의 각 지역은 물론 충북의 청주, 전북의 익산, 금산, 경남의 진주, 밀양, 경기도 여천, 평택 등지에서 370여명이 응시하여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53명이 제1회 입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개교 1년 후인 1934년 3월 12일 종전의 공주도립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부근)에서 1928년에 개교했던 공주공립고등여학교와 교사(校舎)를 서로 맞바꾸는 한편, 충청남도 농사시험장(현 공주여자고등학교 자리)이 대전 유천동으로 옮겨가자 그 자리를 실습지로 인수하였다.

1938년 2월 16일부터 장기면 신관리 530번지(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교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다음해 5월 5일 낙성하였다. 당시의 공주공립농업학교는 학교규모가 컸고 실습시설 등이 매우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에 설립되었다가 예산으로 이전해 간 구 충남공립농업학교와 함께 충남뿐만 아니라 인근 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명성이 높아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3월 9일 뜻하지 않게 378평의 목조 2층 건물인 본관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고, 1946년 6월 26일에는 수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해져서 같은해 6월 29일 구 영명학교 교사로 임시 이전하는 등 불행한 역사도 묵묵히 담고 있다.

1946년 9월 1일에는 6년제의 공주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7월 1일 또 한 차례 심한 수해를 당함으로써 같은 해 10월 1일 구 영명학교로 다시 교사를 임시로 옮기기도 하였고, 1949년 8월 16일에는 교사(校舎)를 구 금학국민학교(1940. 5. 15 공주금학공립심상소학교로 설립, 공주여자고등학교 자리에 학교가 있다)가 1949년 8월 15일 중학동의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음) 자리(현 공주여자고등학교)로 이전하였다가 1951년 8월 31일 공주농업고등학교로 승격, 개편되고, 1963년 5월 7일 현재의 위치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교원양성기관 이야기로

공주지역민들이 결사반대하던 충청남도청의 대전이전이 확정되자 그 보상책으로 공주지역에서는 조선총독부에 몇 가지를 요구하였는데 공주여자사범학교도 이러한 전제의 하나로 설립된 초등교원 양성기관이었다. 민족항일기에 일제가 추진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서원이나 사당은 모두 철폐하고 일제식 보통학교를 다수 설립하였지만 거의 모든 교사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공주지역민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한국인 교사가 가르쳐 주길 바랐던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또한 충남도청을 대전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공주지역민들은 그래도 모든 학교 급이 대전보다 먼저 설립되고, 당시에 소재하였던 모든 한국인 학교들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터라 공주를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유치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에는 여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일반중등학교도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을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비록 오늘날의 고등학교 급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을 공주에 설립했다고 하는 사실이 실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공주여자사범학교는 충청남도립으로 1938년 4월 1일 설립하고 20여일 후인 4월 23일 부속소학교와 함께 당시 공주상반심상고등소학교의 가교사에서 개교하였다.

그 당시 전국에 소재한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는 경성·대구·평양의 3개 관립사범학교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주여자사범학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설립된 것이며, 그 중 여자교사 양성기관으로는 당시에 경성사범학교내에 여자 강습과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공주여자사범학교부속소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앞의 1927년 4월 30일 설립되었던 공주금성공립소학교를 1943년 4월 23일자로 폐지하여 그 학교에 수용했던 남학생들은 공주본정소학교(현 공주중동초등학교)로 전출시키고 여학생 436명을 부속소학교로 전입시켰다. 공주여자사범학교의 제1회 입학생은 경성여자사범학교에 의뢰하여 심상과 200명과 강습과 200명을 각각 선발하였다.

공주여자사범학교는 1941년 4월 1일 종전의 부속소학교를 ‘부속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 종전의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라고 바꾼 것은 부속 소학교만이 아니고 이미 존립하고 있던 모든 한국인 소학교(초기의 보통학교)를 모두 바꾼 것인데, 국민학교의 ‘국민(國民)’이라는 명칭은 당시 중·일전쟁 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일제 침략군의 전세가 점차 불리해져가자 모든 한국인들을 ‘일본(皇國)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臣民)’으로 기른다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941년 3월 1일 전시체제교육에 맞도록 국민학교령을 공포함에 의한 것으로, 국민학교의 ‘국’ 자는 황국의 국에서 따오고, ‘민’ 자는 신민의 민에서 가져와 ‘국민’ 학교라고 한 것이다.

1950년 4월 1일에는 종전의 충청남도 소관에서 문교부관할로 이관되면서 국립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에는 병설중학교(현, 중·고 통합체제)를 신설하였으며, 1951년 6월 21일에는 공주사범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남녀 공학으로 개편한 것에 이어 1962년 2월 19일에는 2년제 공주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고, 1982년 3월 1일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3년 3월 1일 공주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해방 이후 2007. 3 현재까지 공주지역에 설립된 학교는 유치원 55개원(국립: 1, 공립: 43, 사립: 11), 초등학교 32, 중학교 16, 고등학교 9, 대학 4개교로 약 60여년 사이에 모두 116개의 학교가 새로 설립되었다.

이를 개화기와 민족항일기에 세워진 학교 수와 합쳐 보면 유치원이 56개원, 초등학교가 64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7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그리고 대학이 4개교가 설립되어 공주에 지금까지 세워진 정규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제외)는 모두 159개교였다.

해방 직후의 특징은 중등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여러 곳에서 고등공민학교(보조학제)가 출현하였다가 정규학교로 개편되었거나(예, 정안고등공민학교→정안중학교, 경천고등공민학교→경천중학교,

금흥고등공민학교→공주정보고등학교) 없어진 사실이 있다.

그동안 공주지역에 소재하였던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조명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능인(能仁)학원과 공주명륜(明倫)고등공민학교에 관한 교육자료가 발견되어 이들 학교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의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¹⁾

한편 공주에서는 공립의 특수학교(공주정명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충남과 학교고등학교)를 유지하여 설립한 예, 예산농업전문대학을 공주대학으로 통합(1992)한 예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유치원이 설치된 사례(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를 새로운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주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규모학교가 폐교하게 되어 2007년 3월 현재에는 유치원이 41개원(국립: 1, 공립: 33, 사립: 7), 초등학교가 34개교(국립: 1, 공립: 33), 중학교는 15개교(국립: 1, 공립: 11, 사립: 3), 고등학교는 10개교(국립: 1, 공립: 5, 사립: 14), 특수학교 1개교, 그리고 3개 대학이 있다.

이 숫자는 공주에 가장 학교가 많았을 때보다 유치원은 15개원이 감소하였으며, 초등학교는 30개교(분교 포함)가 폐지되었고, 중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가 감소한 것이며, 대학은 공주문화대학이 2002년 공주대학과 통합함으로써 1개교가 줄어들었다.

결어(結語) : 공주교육의 미래

이상에서 공주교육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 글을 통하여 독자 들께서는 공주의 역사는 곧 교육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아셨을 줄로 믿는다. 학교가 변천되어 온 전국적인 통사적(通史的) 경향이나 충남지역의 변화 추세로 볼 때 선사시대 이후 백제시대에 들어 화려한 문화창조와 전파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고려이후 개화기에 들어서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공주가 일찍부터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 능인학원과 공주명륜고등공민학교에 관하여는 유승광, 공주 능인학원과 명륜고등공민학교에 관한 소고, 웅진문화 제19집(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6), pp.39-5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교육사적인 변천과정이 공주를 충남의 교육거점지역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특히 개화기 이후 공식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된 후 오늘날까지의 교육변천과정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더 기술할 수 있다.

첫째, 개화기 이후 일찍이 다양한 급별·설립별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중심지로서 충남·대전지역의 교육을 선도해 왔다는 점, 둘째, 민족항일기 일제의 잔혹한 식민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계 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왔다는 점, 셋째, 우수한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원양성기관을 일찍이 설립하여 수많은 교육자를 배출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적 명예가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 넷째,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가 많고 성적 또한 월등한 학교,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공주에 소재한 우수한 학교로 진학하려는 외지학생들의 많은 유입으로 인하여 지역인구에 비한 높은 학생수 점유율을 가져옴으로써 일찍부터 생동감 있는 교육도시로 변모시켰다는 점, 여섯째 유치원부터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국립학교를 빠짐없이 설치함으로써 시범적인 학교 모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일곱째 도 단위 교육연수기관과 학생수련기관 및 외국어교육원을 유치함으로써 각급학교 교원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관계 인사(人士)들 뿐만 아니라 충남 전 지역의 학생들이 공주에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여덟째 예산농업전문대학, 공주문화대학 및 천안공업대학이 공주대학교와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립종합대학으로서의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공주를 충남발전의 주축이 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주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향토사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제의 공주 장군 니식진



최 병 옥

- 문화관광해설사
- 전) 초등학교 교장

1300여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는 5만의 신라군과 13만의 당나라 연합군에 의하여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678년 동안이나 면면히 이어져온 백제를 당시 신라가 단독으로는 쳐부수지 못하니까 강국 당의 세력을 끌어들여 찬란했던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660년 당은 백제 유민을 13,000명 가까이 당으로 끌고 갔다. 그 중에는 농민이나 천민을 제외한 국가의 중추적인 인물들 즉 왕이나 왕족들, 사족들, 관리, 장군 등을 포로로 끌고 갔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백제 유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으나 다만 중국에서 출토된 몇가지 지식(誌石)으로 알 수 있다.

백제 유민으로서 중국에서 발견된 지식은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義慈王)의 아들 부여용(扶餘隆 : 공주에서 웅진도독을 지냄), 흑치상지(黑齒常之 : 백제 부흥운동을 펼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에서 험격한 공을 세운 장군), 흑치준(黑齒俊), 난원경(難元慶) 그리고 작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니식진(禰寔進)등 여섯 사람뿐이다.

그 중에서 니식진은 공주 사람으로서 614년 경에 태어나서 백제의 장군으로 있다가 백제 멸망시 그의 나이 46세때 당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다. 그의 조부는 좌평(左平:신하로서는 최고의 벼슬로서 지금의 장관급) 예다(藝多)이고 아버지도 좌평을 지낸 사선(思善)으로 기록되어있다. 특히 그의 조부 예다는 웅진시대 성왕 밑에서 최고위급 좌평을 한 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니식진 장군은 당에 끌려가서 당의 조정에 협력하게 되었

대당고좌위위대장군



고 당나라 최고위급 경비부대장인 ‘좌위위대장군(左威衛大將軍),을 지내다가 당 고종 통치 시기인 672년 5월 25일 현재의 산둥성 옌타이시 룡커우인 내주(來州) 황현(黃縣)에서 58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해 11월 21일 유해를 시안으로 운구케 되고 고관들이 묻히는 고양원(高陽原)에 안장된 것이다. 황제가 명령을 하여 시안으로 운구토록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공을 세운 중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석이 발견된 장소는 당의 수도였던 산시성 시안으로서 작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그의 사망 장소가 산둥성인 이유에 대하여 ‘668년 고구려 멸망후 끌려온 유민들을 안무하기 위해 그를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웅진시대에 선진을 견고있는 중국 양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한 기반을 조성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일본에 전수하는등 활발한 외교도 펼쳤음을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웅진시대에 예시 3부자가 펼친활동 모습이 중국에서 지석으로 발견되었음은 오늘 공주에 사는 백제의 후예로서 긍지를 느끼는 바이다.

공주시 응진동



지명에 얽힌 사연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

- 마을의 지리적 환경
- 마을과 지명 유래
- 역사 기록 속의 한산소 · 박산소
- 한산소와 박산소의 문화유적
- 한산소 · 박산소 마을의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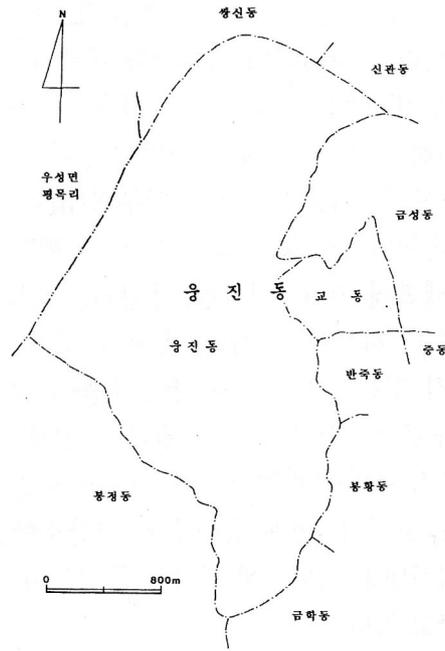
마을의 지리적 환경

현재 공주시 웅진동에 속해 있는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은 금강과 근접해 있으며, 주변에 표고 100m 안팎의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분지형 지형에 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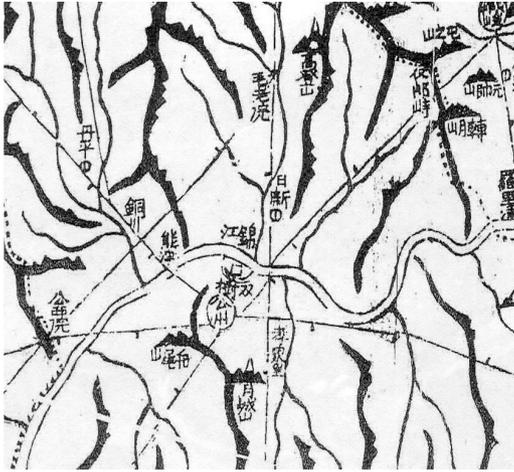
사실 현재와 같은 금강의 높은 제방이 쌓아지기 이전의 웅진동 일대는 금강을 이용한 수운이 활발한 곳이었으며 이곳을 경유하여야만 공주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어 교통로로서 매우 중요시 되던 곳이었다.

금강과 고마나루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한산소와 박산소마을 앞으로도 금강의 작은 줄기가 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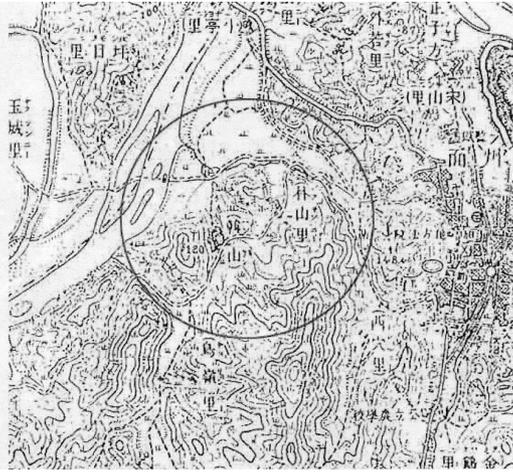
공주시 웅진동 위치도



한산소 · 박산소 전경



대동여지도의 조사지역 부근



1914년의 웅진동 일대

규모는 작지만 고마나루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1950년대 어간만 하더라도 ‘되테울나루’와 들목나루 ‘라고 불리는 마을 앞 나루터에서는 배들이 오갔다. 특히 되테울나루에 큰 배가 들어오면 수십이 얹아 마을에서는 이들이 실어온 물품을 지게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바로 이 시기가 전 근대 사회에서 이 마을이 가장 번성했던 때로 전해온다. 들목나루는 되테울나루보다는 작은 규모로 강 건너 평목리를 연결하던 나루터였다.

마을 주변의 농토는 둑과 제방이 건설되기 전에는 금강의 물길이 흐르던 강이나 습지대였고, 이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한 것은 금강변의 제방을 막

은 이후였다. 실제로 지금도 마을 주변의 토지를 파거나 개간하면 강바닥에서 볼 수 있는 자갈돌들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웅진동 일대는 공주시내권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을 계기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현재 마을 주변에는 송산리고분군이나 고마나루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및 공주시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근린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마을의 특징적인 요소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아파트와 주택가, 그리고 최근에는 공주경찰서 신축사옥까지 입지하여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공부목의 남부면에 속

했던 웅진동 일대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외약리, 용당리, 박산리, 서혈동, 하산리, 소정리, 송산리, 하봉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당주읍에 편입되어 용당정이라 하였다. 광복 후 1947년 일본식 동명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웅진동으로 고쳤다. 현재 한산소와 박산소에는 각각 70에서 20호에 이르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과 지명 유래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 유래

웅진동 한산소와 박산소는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한 씨와 박 씨가 많이 살았고, 이들 성씨의 큰 산소들이 있어 이름 붙여졌다고 한

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후손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그 유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박산소의 경우는 그 무덤마저도 후손들에 의해 이장되어진 상태이며, 한 씨들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한산소에 남아 있는 충청감사 한태동(1646~1687)의 묘와, 그의 행적과 신이담이 전해져 옛 자취를 전해준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채 씨와 정 씨 또한 마을에 오래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그 거주 시기, 지명, 인물 명, 사유, 흔적들이 특별하게 남아 전하지 않는다.

현재 한산소와 박산소 일대는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성바지 마을로

금강과 고마나루



한산소 마을 전경



변하였지만,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성씨로는 박산소의 창원 황 씨, 한산소의 경주 이 씨가 있다.

창원 황 씨 장무공파가 박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후손 황석준(91세)의 6대조 황호기(1797~1865)에 의해서였다.

황호기의 자는 순안(舜安)으로 원래 현재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곰지기마을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창원 황 씨 집안의 가세는 번창했다고 한다.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호기 대에 이르러 다시 고향땅 부여로 낙향하게 되었다. 원래 그의 조

부 황재욱(1754~?)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여군 초촌면 가정리 일대에서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부여군 가정리 일대는 현재도 창원 황 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추포 황신(黃愼, 1562~1617)과 지소 황일호(黃一皓, 1588~1641)의 후손들이다. 그러나 황호기는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정착하지 못했고, 주변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박산소와 인근 봉정리였다고 전한다. 황호기의 묘는 봉정산에 있다.

경주 이 씨 보덕공파가 한산소에 거

주하기 시작한 것은 제보자 이상훈(72세)의 5대조에 의해서였다. 원래 경주 이 씨 일가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화재로 인하여 이곳 한산소로 분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이거 경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특히 박산소와 한산소 지역은 고마나루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항쟁의 큰 역사가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곰내 어귀에 있는 송장배미는 동학농민군이 고마나루 쪽에서 공주감영이 있던 봉황산으로 진격해 들어가던 길목이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는 여러 유형의 동학 관련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로 보아 역시 이 일대가 공주 중심지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당시 중요한 접근로이자 교통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산소와 박산소의 지명 유래

한산소와 박산소 일대의 지명에 관해서는 한글학회의 『지명총람』(1974)이라든가,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공주지명지』(1997)를 참고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전언을 추가하였다.

- ▲ 성피산(성미산, 성산) : 사근절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옛 통성 터가 있는데 백제 때 것으로 여겨진다.
- ▲ 문필봉(서혈봉) : 봉우리가 붓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산의 서쪽으로는 굴이 있고 그 밑에 서혈사(西穴寺) 터가 있다.
- ▲ 두루봉(두리봉) : 한산소 뒤에 있는 산으로 둥근 봉우리가 매우 높게 빼어났다.
- ▲ 중미(중산) : 한산소와 박산소 사이의 낮은 산으로 이곳에서 옛 무덤으로 짐작되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 ▲ 한산소(韓山所) : 박산소 서쪽에 있는 마을로 두리봉 아래가 되는데, 충청감사를 지낸 한태동의 묘가 있다.
- ▲ 박산소(朴山所) : 옛날부터 박 씨들의 산소가 있다 해서 박산소라 부른다.
- ▲ 구향교골(생교골) : 잠방골 동쪽으로 지아집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에 공주향교가 있다가 1623년(인조 1)에 교동으로 옮겨갔다. 현재 국공장이 있는 곳이다. 한편 예전에는 누에를 치던 잠방이 있었다고 한다.
- ▲ 절골 : 박산소 뒤 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삭은절'이 있었다고도 하며 기와나 사기그릇 등을 굽는 가마터가 있었다.

- ▲ 서혈리(시어골, 솟골) : 현재 금성여고 옆으로 난 송장배미 소류지와 그 일대를 시어골이라 부른다.
- ▲ 동짓들(등짓들) : 박산소 아래에 있는 들이다. 한편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일제 때 기묘년 가뭄에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의 땅을 깊게 판적이 있었는데, 당시 땅 속에서 다양한 모양의 토기 그릇들과 놋그릇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실생활에 사용되던 생활용기는 물론, 제사 때 사용하던 제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 ▲ 진설미 : 동짓들 아래에 있는 들로 밭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무더미 : 용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 왕지개들(왕지갈, 왕지울) : 박산천의 물과 금강이 만나는 곳으로 잉어가 이곳까지 올라왔었다고 한다.
- ▲ 뒷골 : 경일아파트 뒤쪽 마을로 지아집뚝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 들목나루 : 고마나루와 되데울나루의 중간지점, 고을과 고을을 잇는 곳이라는 뜻이다.
- ▲ 빗돌배기 : 한산소 앞에 있는 들로 들에 빗돌(비석돌)이 박여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주민들의제보에 의하면, 비석을 세우기 위해 비석돌을 당진에서부터 운반해 오다가 얇은 물에 배가 좌초되면서 밭에 비석이 묻혔다고 한다.
- ▲ 잔디고개(잔티고개) : 한산소에서 봉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작은 고개라는 뜻이다.

〈다음 호에 계속〉



충정공 비각

忠定公 默齋 이 귀
李 貴
(1557~1633)

선생은 조선조 유현(儒賢)이며 인조 때의 공신(功臣)으로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의 5대손이며 증영의정(贈領議政) 정화(廷華)의 아들이다.

1557년(명종12) 3월 1일에 출생하여 2세 때 부친을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라났으며 율곡 이이 선생과 우계성훈(牛溪成渾) 선생의 문인으로 김장생(金長生) 등과 동문수학 하면서 교유하였다.

1582년(선조15)에 생원이 되고 강릉참봉(康陵參奉)을 거쳐 임진왜란 때 삼도소모관(三道召募官) 삼도선유관(三道宣諭官)으로 군졸과 우마(牛馬)등을 징발하여 도체찰사(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수송했다.

1603년(선조36)에 문과에 급제(及第)하고 형조좌랑(刑曹左郎) 안산군수(安山郡守) 백천군수(白川郡守) 등을 역임하고 함흥판관(咸興判官)을 지냈으며 1616년에 무고(誣告)를 입고 수감된 해주목사(海州牧使) 최기(崔沂)를 만나보았다 하여 이천(伊川)에 유배(流配) 당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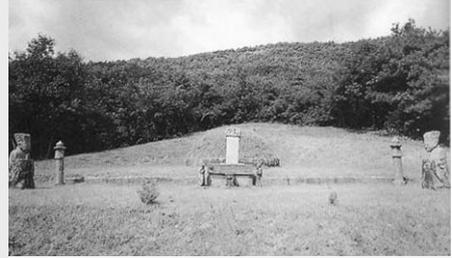
그 후에 평산부사(平山府使)가 되었으나 광해군(光海君)의 살제폐모(殺弟廢母) 등 잔인한 패륜행위(悖倫行爲)와 난정(亂政)을 개탄, 1626년에 김유 등과 같이 의거(義擧)하여 광해군을 폐하고 능양군(綾陽君:仁祖)을 추대, 왕위에 올라 구국적(救國的)인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이루어졌다.

그 후 선생은 호위대장(護衛大將),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使) 우참찬(右參贊), 대사헌좌찬성(左贊成)이 되었으며 정사공신 1등(靖社功臣 一等)으로 분충찬모입기 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 明倫靖社功臣)에 호(號)를 사(賜)받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후 1626년(인조4년)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내고, 그 해 김장생(金長生)과 같이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상(喪)을 만 2년으로 주장했다가 대간의 탄핵으로 사직했다.

이듬해 정묘호란(丁卯胡亂)때 인조를 강화도(江華島)에 호종(扈從)하고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화의(和議)를 주장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충정공 목재 이귀 선생 묘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쾌성산 소재



향년 77세(인조11:1633년)에 졸(卒)하니 상(上)이 거애(擧哀: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 하심에 곡성(哭聲)이 궤내(闕內:대궐의 안)에 통하고 어용(御用)의 의리(依履)와 면단(綿緞)과 습구(襲具)를 하사하시고 하교왈(下敎曰) 이모(李某:연평을 칭함)가 지무불언(知無不言)하고 갈성보국(竭誠補國)하더니 충직한 신하가 이제 홀연히 기세(棄世:별세)하니 내가 심히 비통(悲痛)하다 하시고 또 가로되 그 입상(入相)치 못한 것을 내가 심히 후회하니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하라 하시고, 특별히 상지관(相地官)을 보내서 택조(宅兆:묘지)를 선택하여 장사케 하시고 제물과 장물(葬物)을 하사하시고 이미 장사함에 여러 상주에게 사물(賜物)이 그치지 아니하고 일찍이 하교왈(下敎曰) 거야(去夜)의 꿈에 선경(先卿)을 보니 나를 위하여 체읍(涕泣: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음)하고 나도 역시 집수유체(執手流涕)한 마음을 불금(不禁)하며 지금 해가 장차 저물어 가니 자손이 반드시 균색한 일이 많을 것이니 내수미 10석(內需米 十石)을 사급(賜給)하니 분식(分食)하라 하시고 매양 기일(忌日)에 제수(祭需)를 사급하여 상례(常例)로 정하시니 전후은휼(前後恩恤)을 특별히 베풀었다.

푸셨다.

그 후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였을 때에 이귀(李貴)가 없음을 지극히 탄식하였다고 한다. 평소에도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평(延平)을 찾았다고 한다(國有大事咸曰延平). 선생은 율곡 선생의 고제자(高弟子)로 도학(道學)이 높은 유현이며 청빈하고 옳다고 하는 일에는 초지일관 했으며 특히 인조반정을 주역하고 입기명륜(立紀明倫)하여 문란했던 종묘사직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인륜을 되찾아 나라 안정에 큰 공을 세워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충직하고 의로운 정사공신(靖社功臣)이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종묘인조묘정(種廟仁祖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定), 저서에 묵재일기(默齋日記), 이충정공장소(李忠定公章疏)가 있다.

선생의 묘는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쾌성산에 위치해 있으며 이동래 입구에 신도비를 세워(1634년) 선생의 행적이 전해오고 있다. 그 자손들이 이 근처에는 이인면 목동리와 탄천면 내에 살고 있다.

공주시, 구도심권에 디자인 입힌다



오랜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 골목은 최대한 옛 모습을 되살려 나가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에 넓은 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지어 창조적이고 새로운 도심 중심축(Urban plaza)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 공주시 구도심

공주시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차별성으로 역사도시의 랜드 마크를 구도심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용역을 맡은 최욱 씨(건축설계 원오원 대표)는 “도시는 역사와 강과 산, 사람과 건축물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가꿔져야 한다”면서 “공주 구도심은 학교와 관공서가 많이 있음에도 담으로 높게 둘러싸여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중요한 모티브”라고 강조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접수

공주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가 곤란한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로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840-2806)로 문의하면 된다.

제2회 공주 복지박람회 행사 성료

공주시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함께 나누고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공주'라는 주제로 백제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회 「공주복지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복지박람회에서는 국민건강공단의 시민건강 검진코너와 찾아가는 주민지원센터의 한방진료와 건강체크, 이·미용봉사, 이동목욕봉사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가 전개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주시, 11월 1일부터 4개월간 수렵장 개설 운영

공주시가 동절기 4개월 동안 시 관내 전지역에 대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공주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공주시 수렵장은 422.35km²의 면적으로 전체면적 940.74km²의 44.9%에 이르고 있으며 최대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청설모·수평·멧비둘기·참새·까치·어치 등이며, 포획량은 멧돼지·고라니는 엽기내 3마리, 기타 종류는 1일 5마리 이내로 제한했다. 공주지역에서는 그 동안 유해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농민들의 피해 구제신고가 잇따랐으며, 2005년 86건의 신고건수가 2006년에는 124건, 금년에는 9월 18일 현재 220건이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 감시반을 편성·운영함과 함께 시민들에 수렵기간 중 입산 자제와 충성으로 인한 입산부·노약자의 주의, 방목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제문화제, 세계속의 문화제전으로 발돋움



지난 11일 공산성주무대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개최된 제53회 백제문화제는 백제역사에 걸맞은 테마 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적인 홍보, 외국 자매결연도시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축제의 통합개최로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뒀다.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100 마리의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을 비롯 61종의 백제 문화 조형물과 공연 퍼포먼스로 어우러진 퍼레이드 백제문화 판타지, 무령왕의 실체 체험의 장 무령왕이야기,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한 백제문양 패션쇼, 백제문화 체험의 시간인 백제향 등 테마 프로그램은 이전 대회와의 차별화가 돋보였다.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인 백제문화제는 이제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국의 관광객과 세계인의 문화인이 함께 하는 문화축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주일원에서 펼쳐진 공주 국제미술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동아일보 2007 백제마라톤, 공주 알밤축제, 공주농업 어울 한마당 등 규모성 있는 행사들은 백제문화제의 11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동원에 일조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주시 보건소

건강운동정보 안내판 설치 큰 인기

공주시보건소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등산로와 체육공원 등에 설치한 건강운동정보안내판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 보건소가 현재 설치한 건강운동정보 안내판은 지난 2005년 월성산등산로를 비롯 2006년 금강둔치체육공원 그리고 지난 11월 초순에 설치한 연미산등산로 등 총 3개소.



특히, 연미산 등산로에 설치한 건강운동정보안내판에는 연미산 등산시 남·녀의 평균 운동강도가 75%Hmax, 하산시 61%Hmax인 점과 이에 따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큰 상태다.

유구천 가꾸기 환경축제 큰 호응 속에 성료

환경의 주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한 2007. 유구천 가꾸기 환경축제가 학생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료됐다.

14일 오전 10시 유구초등학교 교정에서 전개된 유구천 가꾸기 환경축제에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 지역인사, 초등학생, 지역주민, 웅진코웨이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유구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와 친환경 먹거리 체험, 유구천 바로 알기 퀴즈, 재활용 벼룩시장 운영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환경 테마의 비보이 공연 모습

공주전통문화교육원 준공 문화·교육체험 등 전통문화 교육의 장



이초려기념사업회 부설 공주전통문화교육원 준공됐다.
공주전통문화교육원은 1층 강당, 2층은 숙소와 세미나실이 들어서 좋은 문화체험과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생명과학고, “국화잔치 열렸네”

다룬대작 등 총 1,200여분 정원에 전시



11월 1일 현재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이문하)에서는 곱게 차려입은 예쁘게 잘 자란 국화들이 서로 자태를 뽐내었다. 지난 달 31일 개막, 4일까지 펼쳐진 '빛뜨란 국화 작품전'은 오랜 전통을 지닌 전시회로 해마다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가을국화의 정취를 선사하였다.

김재현 총장 퇴진 서명운동 전개 공주대 교명변경 저지대책 협의



공주대 교명변경 및 대학본수이전 총력저지 범공주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교명변경 수호 및 김재현 총장 퇴진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시, 2007년 공공비축미곡 16만 가마 수매

공주시는, 11월 7일 우성면 귀산창고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신품면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의 31개 창고에서 공공비축미곡 15만9,800가마(40kg)를 수매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수매물량은 계룡면이 2만4,360가마로 가장 많고 우성면이 2만2,550가마, 의당면이 1만9,950가마, 탄천면이 1만9,040가마 그리고 정안면 1만9,000가마 순이다.

수매일정은, 11월 7일 우성면 귀산창고에서 3,000가마를 수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8일에는 계룡면 경천창고와 의당면 수춘창고에서 각각 3,000가마씩을,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이인면 초봉창고 등 2개 지역에서 1,175가마를 수매하게 된다.

수매가격은 특등급이 벼 40kg기준 5만50원, 1등급이 4만8,450원, 2등급이 4만6,300원, 3등급이 4만1,210원으로, 수매대금은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며 차후 전국산지 평균가격을 조사해 정산 지급한다.

공주 농업 어울 한마당



제 5회 공주 농업 어울 한마당 행사가 10월15일 금강 둔치공원 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농업지도자 공주시 연합회는 권재덕 농촌지도자 연합회장과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시의회위원장, 박공규 도의원, 이범현 박종숙 시의회의원 등과 공주시 생활개선회 조인행 회장 등 5백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었다.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체육대회 성대히 개최

10월 2일 공주시 금흥동 소재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회장 직무대리 이경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농업경영인의 새로운 출발다짐과 위상정립 차원에서 '뭉치자 하나로! 수호하자 우리농업!'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

개회식에 이어 유구읍 명곡리 구분길(남, 35세)씨 등 11명이 공주시장상을, 계룡면 화은리 오건석(남, 54세)씨 등 2명이 정진석 국회의의원 표창을, 장기면 화봉리 박세중(남, 52세)씨 등 2명이 공주시의회의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2007 공주시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체육대회는 농업인과 가족들이 읍·면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기를 펼쳐 단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웅진도서관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개최



웅진도서관은 10월 17일 오후 2시 곰나루 관광지 야외무대에서 관내 12개 초등학교 학생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대회에서 저학년(1~3학년) 부는 “전래동화”를, 고학년(4~6학년) 부는 “위인전”을 사전에 읽은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감상화를 그려 보았다. 웅진 도서관은 어린이들에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 줄 이번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의 우수작품을 웅진 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하기로 했다.

제11회 공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1회 공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10월 2일 공주문예회관에서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 노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서는 노인들이 평소 같고 닦은 체조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어르신 장기자랑 대회에서는 읍·면·동 별로 다양한 자랑거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장기자랑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공주경찰서, 경찰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 및 공연 등, 그간의 노고 위로



공주경찰서는 19일 오전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공주시 중학동 소재 충령탑에 참배한 뒤 공주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주경찰서는 유충호 공주경찰서장 및 직원, 전경어머니회, 행정발전위원회, 협력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일초 조동수 교장 을파소상 수상



공주신일초등학교 조동수 교장이 교육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아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을파소상을 수상했다.

조 동 수 교장

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마쳐 “우리 고장 상가를 이용해 달라”

공주시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한 한마음 축제가 10월 6일 교촌교 부근에서 1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성기열 상가번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날로 침체해가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 공주고객사랑 한마음 축제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인근 논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매출금액이 7억원이라며 공주시민들께서도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고장의 상가를 이용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제8회 박찬호기 전국초등야구대회 11월2일 개막



제8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1월 2일부터 7일까지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의 박찬호 꿈나무 야구장과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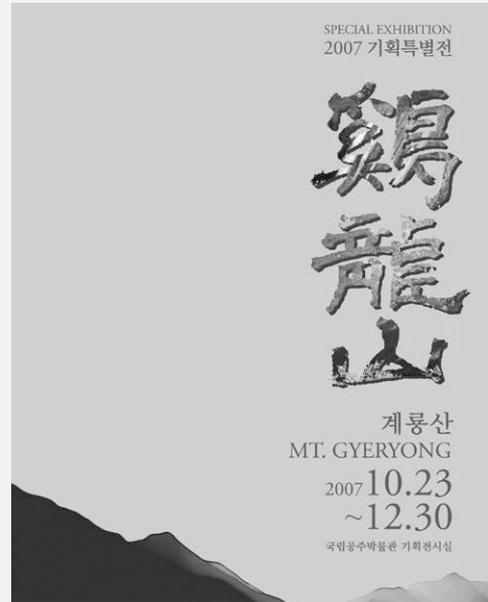


계룡산 기획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10월 23일~12월 30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신창수)이 '계룡산'을 주제로 하는 기획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2007 기획특별전 계룡산'은 계룡산의 유래와 풍수지리적 특징으로 형성된 종교적 분위기와 계룡산의 깊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풀어내는 전시로 주제는 크게 4개로 구성되어 10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실에서 전시된다.



제 7회 2인 음악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제 7회 2인 음악회'가 공주문화원에서 열렸다.

테너 박찬홍·바리톤 한중동의 노래로 지난 11월 8일 저녁 7시 공주문화원 1층 연주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대중가요와 쉽고 편안한 클래식 음악으로 짜여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됐다.



제53회 백제문화제 기념 학술세미나

‘백제의 생활문화 학술발표’

제53회 백제문화제 기념 학술세미나가 10월 15일 공주대학교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소장 서정석)가 주관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백제의 생활문화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김기섭 발표자는 ‘백제의 식생활문화’에 대해 “백제인들은 곡물, 나물, 채소, 과일, 육류, 어류, 조류, 패류 등 다양한 재료를 조리하여 먹었다”며 “곡물류를 가공·조리하는 방법에서 찜은 지배층에서, 죽, 밥은 평민들이 주로 지어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의료상품학과 김병미교수는 ‘백제옷의 직물과 문양’에 대한 발표에서 “제53회 백제문화제의 ‘백제문양 패션쇼’ 참가를 계기로 백제복식과 직물, 그리고 문양연구의 실마리를 푸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번 패션쇼에서는 직물 및 여기에 사용된 문양의 표현에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용진시기 백제의 국가제사’에 대한 재미하 경희대강사의 발표에 이어 공주대학교 서정석교수는 ‘부여 관북리 ‘北舍’ 銘 토기 출토 건물지’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유적을 기록과 대비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도성제와도 비교하여 도성의 편제 원리 등을 찾아낸다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사비도성을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여 관북리의 ‘北舍’ 銘 토기 출토 건물지에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제53회 백제문화제



‘712m 인절미’ 한국 최고기록

2000여 명 참석, 성황리에 마쳐



주민들의 자발적 축제 참여 프로그램인 이날 행사는 백제문화제를 한단계 향상시켰으며 우리 먹거리인 인절미를 ‘공주떡’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킨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3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축제인 ‘인절미 만들기’ 행사에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심대평 국민중심당대표, 정진석 국회의원, 최석원 백제문화제집행위원장,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등 단체기관장과 공주시민·관광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공주 떡 잇고, 공주마음 나누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인절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단위, 친구들과 함께한 참가자들은 직접 인절미를 만들고, 떡메치기, 인조대왕에게 우성 임씨 성 백성이 떡을 받치는 헌편식, 권재덕과 풍물패의 신명나는 한마당, 김삼중의 축하노래, 풍선 날리기 등 다채롭게 펼쳐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즐겁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인절미 길이가 무려 712m로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록을 수립하여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공주문화원 벽초 박홍규 초대전

-일시 : 2007년 11월 10일 ~ 11월 14일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벽초 박홍규 화백 약력

- 대한민국서예전람회특선 및 우수상수상(문인화)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 대한민국서예고시대전 초대작가, 초대작가상수상
-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인터넷서화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
- 한라서예전람회 운영위원
- 대한민국진사고시서화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
-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공주시지부장

제12회 우공 서화전

-일시 : 2007년 10월 27일 ~ 30일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은은한 목향을 느껴볼 수 있는 서화전이 공주에서 열렸다. 제 12회 우공 서화전에는 우공서회(회장 현순옥)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4일간) 공주문화원 대전전시실에서 전시했다. 우공서회를 지도하고 있는 이일권 씨는 이번 제53회 백제문화제에 '깃발서예전'을 금강교 위에서 진행했으며, 깃발 250여 개의 충남서예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수놓아 장관을 이룬 주인공이다.

2007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에서는 2007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을 지난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공주문화원 지역문화 학교는 금년 수료인원을 포함하여 약 2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공주 시민들을 위해 문화적 수준 격차 해소와 심성계발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공주시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서산장학재단 공주지부 창립 및 장학금 전달

- 초대 지부장에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임명
- 학생 2백 24명에 장학금 1억2천5백만원 전달



지난 1990년 설립된 서산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총 3백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 학술, 교육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등 4개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오고 있다.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理事長 成完種)은 16일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공주시지역 기관장과 교육계 인사, 장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회원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장학재단 “공주지부 창립식 및 2007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이날 서산장학재단 공주시 지부 초대 지부장에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을 임명했다.



문화원소식

제11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

불우이웃 20명에 1천만원 전달



만희복지사업운영위원회(회장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에서는 제11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식이 설립자인 박형만 사장을 비롯하여 이준원 공주시장 및 단체장과 수혜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7일(수) 오전11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정재욱 문화원장 옥관문화훈장 서훈

2007년 문화의날, 문화예술 발전 공로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이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10월 18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된 2007년 문화의날 행사에서 정재욱 원장은 열악한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훈장수여를 받았다.



2007년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2007 정해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7년 1월 3 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웅진춘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고사와격언, 향토사료, 이달의 문화인물, 내고장소식, 문화원소식, 문화가 산책 등
3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후속프로그램	· 일시 : 1/18 14:00~17:00 · 장소 : 도령서당	학생과 실버학교 어르신 화합축제 - 팔치기, 집터다지기, 가래질소리, 논매는 소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세대간의 화합을 결속
4	예인촌 정기공연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신의 아그네스”	· 일시 : 2/24-2/26, 17: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작품명 : 신의 아그네스
5	공주문화원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13 - 7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 가곡반 ② 풍물반-초급 ③ 풍물반-중급 ④ 댄스스포츠반 ⑤ 켈트 ⑥ 국선도반 ⑦ 서예반 ⑧ 요가반 ⑨ 닥종이종이접기 ⑩ 가야금 ⑪ 생활일본어
6	예인촌 공연 “의당면민 노인위안공연”	· 일시 : 5/7 10:00 · 장소 : 의량초등학교 · 참석인원 : 500명	예인촌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어버이날 의당면민 노인위안 공연
7	예인촌 공연 “가정의 달 특별공연”	· 일시 : 5/18 · 장소 : 공주국립병원 위안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병마와 싸우는 공주국립병원 위안 공연
8	공주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5/21 - 11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 국선도 ② 풍물반-초급 ③ 풍물반-중급 ④ 댄스스포츠반 ⑤ 요가반 ⑥ 가곡반 ⑦ 서예반 ⑧ 생활일본어 ⑨ 닥종이종이접기 ⑩ 켈트 ⑪ 비즈공예, 와이어공예
9	제12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 일시 : 6/8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8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화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문화원소식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0	예인촌 정기공연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콘서트”	· 일시 : 6/14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연주회
11	제12회“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1 16: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백일장 시상식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2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일시 : 8/3 · 장소 : 도령서당	향토지킴이와 꿈나무 어린이와의 만남 -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리계소리, 논매는소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세대간의 화합
13	청소년 및 시민 문화유적 답사탐방	· 일시 : 8/25 · 장소 : 여주, 음성 · 참석인원 : 83명	답사코스 : 여주-명성왕후생가및 기념관-세종대왕릉-신록사-목아박물관-음성 음성큰바위얼굴 공원
14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9/3 - 9/9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향토작가 “동천 이기하 선생 서예전”
15	예인촌 정기공연 실버전통 예술단 “논두렁 밭두렁” 발표회	· 일시 : 9/13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전통 문화 공연으로 두레풍장, 공주소리, 동요 한가위를 앞두고 시민의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
16	제21회 전국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 일시 : 10/11~10/12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민족 고유의 전통가락으로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문화를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17	제12회 우공서화전	· 일시 : 10/27~10/30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문화원 초대 -“우공서예전”
18	지역문화학교 전시회	· 일시 : 10/31~11/2 · 장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지역문화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분야: 퀼트, 다종이, 서예, 종이접기
19	제7회 가곡의 밤 공주문화원 가곡교실	· 일시 : 11/5 · 장소:공주문화원 대강당	가곡반 수강생들의 발표회
20	공주문화원 초대 “벽초 박흥규”	· 일시 : 11/10~11/14 · 장소 : 공주문화원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벽초 박흥규”
21	예인촌 정기공연 “문화의 향기 그리고 열매”	· 일시 : 11/15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강당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배사메무초, 태평무, 진도복춤
22	공주문화원 초대 “유순식 초대전”	· 일시 : 12/22~12/27 · 장소 : 공주문화원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유순식 초대전”



문화유적 답사를 마치고



양 승 일
전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I.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25일 공주 문화원의 시민 문화유적 답사가 있었다. 그것은 눈과 마음이 열린 행복한 시간이었다.

문화유적 답사는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우리 조상의 열과 정신을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와 기념관, 목아박물관, 신륵사를 돌아 보고 충북 음성에 위치한 큰바위얼굴 조각 공원을 돌아보았다.

여주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역사성과 한국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어 반가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으며, 음성의 조각공원에서는 세계 역사 및 현존인물 등 위인에 대한 큰바위 조각 얼굴들이 자리하고 있어 답사를 갔던 우리들의 눈에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답사에서 덧붙여 깨달은 것은 문화유적은 거대한 배움터라는 것이었다. 사실 답사지에서 토막토막 만나는 문화유적들은 그것 자체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답사의 길을 떠나는 심정은 사뭇 달랐다.

답사를 가는 일은 길을 떠나 내력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서 인간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옛날의 영광과 상처를 되새기고 나아가서 오늘의 나를 되물음으로써 주변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확인하는 길이다.

II. 문화유적 답사

1. 세종대왕릉 (영릉)

1) 산속의 명당

확트인 전경과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 왕릉은 깨끗이 정화되어 있었다. 하늘도 파랗고 땅도 파랗고 주변 나무들도 오직 푸르다. 소나무들은 영릉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대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유적 영릉은 깔끔히 정리된 잔디와 수려한 경관으로 산속의 명당이라 할 만했다.

2) 세종대왕릉 (영릉)

홍살문을 들어서면서 우측의 망배석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큰절을 시작으로 영릉으로 들어섰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합장한 능이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추앙을 받는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측우기, 혼천의,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발명 제



작하였다. 아악 정립, 야인 정벌, 4군과 6진 개설, 대마도 정벌, 월인천강지곡 등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많은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영릉은 합장릉으로 혼유석이 두 좌가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돌렸으며 동자주에 12 지를 문자로 새겨 넣었다. 영릉은 사적 제 195 호로 지정되어 있다.

3) 과학기구의 발명

영릉 입구 좌측에 천문 관측기구인 간의와 천체 측정기구인 혼천의,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를 볼 수 있다.

세종대왕의 과학적 발명과 업적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2. 명성황후 생가 · 기념관

1) 명성황후 생가

입구 좌측에 명성황후 생가가 보인다. 생가는 정겨운 우리의 전통 한옥 모습이었다. 한옥의 가운데에서 나를 보니 그 때부터 시간은 1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다. 방, 대청마루, 부엌, 광, 방 가리개, 별채 등을 보면서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스며있는 전통 양반네의 생활모습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2) 명성황후 그리고 기념관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강직하였으며 옳고 그른 것을 뚜렷이 밝히는 분별성과 행동에 과단성이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다. 필적은 힘이 있고 당당하였으며 국모로서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인품과 학식을 지녔다고 한다. 조선 26대 고종황제의 황후로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으로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시다 1895. 10. 8 새벽 경복궁 내 건청궁(옥호루)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히 시해 당하셨다.

생가와 기념관은 명성황후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3. 목아박물관

목아박물관은 6,000여점의 불교관계 유물을 소장한 불교용품 박물관이다. 불화, 불상 등의 유물과 함께 동자상을 비롯한 불교관계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불교 문화와 미술을 일반에 널리 알리므로써 특정 종교와 관계 없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4. 신륵사

신륵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유물 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며 고려 우왕 2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다 한다. 신륵사를 일명 “벽절”이라 부르며 한 다층 전탑이 묵묵히 여강(남한강)을 굽어보고 있다. 특히 신륵사에서 전통 한옥의 지붕모양인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을 볼 수 있어서 답사의 가치를 더 한층 높여 주었다.

- 맞배지붕은 지붕의 앞면과 뒷면을 사람인(人)자 모양으로 배를 맞댄 모양이고
- 우진각지붕은 맞배지붕의 양측면을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끌어내려 추녀가 4면에



고르게 만들어져 흔히 우리가 함석지붕에서 보는 바의 형식이다.

-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의 세모꼴 측면에서 다시 여덟 팔(八) 자의 모양을 덧붙여 마치 부채살이 퍼지는 듯 형상으로 합작지붕이라고도 한다.
- 주심포집, 다포집, 창방, 들보, 공포 등을 새로이 익히는 기회가 되었음은 큰소득이었다.

5. 큰바위얼굴 조각 공원

큰바위얼굴 조각 공원에서는 먼저 크기와 조각 수의 측면에서 공원 규모가 엄청난 데 대해서 무척 놀란다.

7만여 평의 넓은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조각상들이 생각이 눈길이 미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로 진열되어 있어 답사자 모두의 눈빛에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했다. 각각의 여러 얼굴 조각들은 제각기 자신의 빛으로 반짝이면서 하나의 큰 작품(공원)을 이루고 있었다.

Ⅲ. 문화원의 문화유적 답사 활동에 대한 관점

1. 바라본 관점

2007 시민 문화유적 답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랑과 결실을 거두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문화원도 경쟁력 있는 시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성실한 메신저 역할을 다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문화유적 답사는 지역과 유적이 동일성을 갖지만 답사자가 느끼는 창의

적이고 가치 있는 답사를 이룬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상시 학습체제를 제도화 하고 있는 문화원의 활동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본다.

금번 문화유적 답사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 시킬뿐더러 뜨거운 여름을 이기는, 여름을 건 강하게 보내는 좋은 프로그램 이었다.

특히 그 지역 문화해설사가 현장에서 자연, 역사, 인문지리 등 폭넓게 해설함으로써 문화유적 답사는 더욱 가치를 발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진보와 행복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대표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될 것이다. 그날에 답사자들에 비추어진 문화원장님 등 관계자의 헌신이 아름다웠다.

2. 답사자들의 표정

- 팽별의 무더위 속에서도 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한 참가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 조별(1호차, 2호차)로 훌륭한 문화유적을 이곳 저곳 둘러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화해설사에게 질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으며 익히고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 문화유적은 단순히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모습이였다.
- 세종대왕릉에서의 과학기구, 세종전의 각종 유산, 동자주의 12지 문자들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들로 선조들의 지혜에 감동하는 표정이였다.



IV. 맺음말

1. 맺으며

오늘날 우리는 지적 풍요와 여유로움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홍수같은 정보와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을 멍들게도 한다. 이러한 삶의 틀에서 한국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유적지를 답사함은 삶의 신선함을 안겨준다.

문화유적 답사는 희망이 있다. 유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실제 답사를 통해서 재음미함으로써 또 다른 각도의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특히 가는 곳의 유적을 보면서 또 다른 문화 역사의 향기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문화는 경제만 챙겨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고유문화,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빛낼 필요가 있다.

문화원의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행복한 문화유적 체험이었다. 풍요롭게 느껴진 하루였다. 그리고 잔잔한 감동과 흥미를 안겨주었다.

2. 또 한번의 기회가

이 답사기를 쓰면서, 나는 단순한 문화유적 관람 또는 회고의 취미가 아니라 산업화와 IT문화에 떠밀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가다듬고 싶었기에 훌륭한 유적답사를 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문화유적 답사계획을 구성하고 있을것이라 본다.

다음에는, 어떠한 문화 유적지를 우리 시민에게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다.

그때에도 시민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줄 것이며 심장의 고동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도록 할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크다.

역사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와서

귀산초등학교 6학년 노 은 영

오늘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모두들 긴장을 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간 곳은 명성황후 생가였다. 명성황후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황제의 황후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명성황후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의 암살로 그만 시해를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고종 황제는 그렇게 몇 년 동안 혼자서 정치를 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비록, 명성 황후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황후였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나는 이 명성황후의 슬픈 사연을 듣고 한없이 슬픔이 일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세종대왕릉이었다. 세종관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남겨 놓은 곳이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영릉’ 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영원은 英(꽃부리 영)자를 써서 ‘영릉(英陵)’ 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다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곳을 와서 보니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한글)과 물시계, 해시계, 양부일구 등 세종대왕의 업적이 정말 대단함을 느꼈다.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문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신록사’ 라는 곳인데 남한강이 옆에 있어 위험이 잇따라 사람들이 남한강의 물이 넘치지 말게 해달라는 뜻에서 ‘신록사’ 를 만들었다고 한다.

남한강 바로 옆에는 벽돌탑이 있었다. 이 벽돌탑 바로 밑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그 절벽 밑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절벽 밑에 있는 남한강 주변에는 동그랗게 물살이 그려졌다.

안내해 주는 문화해설사께서는 저곳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곳이라 해서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지날 때 그 벽돌탑이 보이면 그 밑에 위험한 곳이라고 하여, 가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이지만 지혜가 참 밝았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목아박물관’ 이라는 개인 박물관이었다.

이 곳은 불교의 유물들에 관해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그동안 나는 엄마가 불교신자라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 ‘목아박물관’ 견학으로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큰바위얼굴 공원이었다.

이 곳은 모두 돌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루 종일 보아도 다 못 볼 만큼 정말 많은 석상들이 있었다. 모두들 정말 멋있었다.

나는 그 중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오프라 윈프리’ 밑에서 사진을 찍었다. 정말 뿌듯했다.

그렇게 우리들은 보람차고 뿌듯한 역사문화 탐방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공부를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운 것 같아서 마음 한 구석이 벅차올랐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견학을 위해 힘써주신 문화원에서 나와 주신 사무국장님과 이채구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